

신복사지 석불좌상 보호책 설치——가결. 제주시 관덕정 중수 공사용 기와 제작——가결

7, 사적六二호 대구달성 현상 변경——추인함

◎ 法住寺 捌相殿浮槓架設

홀비계로 매었던 것을撤去하고 工事用 결비계를 지난 八月四일부터 架設하기 시작하였다.

工事用으로 作圖된 復原圖의 檢尺이 金東實氏에 의하여 完了되면 九月初부터 解體가 始作된 예정이라 한다.

現基壇外廓에 別造된 基壇遺構가 있음이 確認되어 앞으로의 調査가 期待된다.

◎ 檀國大學校 博物館 石箱墳發掘

七月二十四일부터 八月三日까지 檀國大學校 博物館에서는 慶南泗川郡龍見面 松旨里長松部落 洪性鐵氏 所有 밭에서 石箱古墳을 發掘調査하였다.

鄭永鎬教授가 引率하는 學生發掘隊는 昨年 西浦面 舊坪里 貝塚發掘調査에 이어 泗川地區調査의 一環으로 龍見面의 石箱古墳群 一廓을 調査한 것이다.

길이 五〇m 폭 一·五m의 트렌치 여섯개를 東西로 넣어 十三基의 石箱墓를 發見하였으나 그 중 五基는 耕作으로 인하여 完破 혹은 半破되어 原狀을 찾을 수 없었다.

臺가 달린 壺·卮·耳附環 등을 위시한 土器의 完形品과 목걸이·귀걸이·鐵製刀類·馬具類 등이 出土하였다.

現地에서 金相朝 統營郡守, 泗川郡守를 비롯하여 有志 諸位, 서울에서 내려온 檀大 車文燮 教授, 梨大 秦弘燮 教授와 金和英, 中央日報 李宗碩 諸氏의 協助가 있었다. 實測은 同人 申榮燾氏가 擔當하였다. 또한 多數學生들이 參加하여 實習하였다.

「忠南 泰安의 磨崖三尊佛像」補

黃 壽 永

— 第九卷 第九號 通卷九十八號 —

一九六一年十月 필자가 이 三尊佛을 처음 조사하였 ①을 때 그 下部는 埋沒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一部分의 試掘에서 兩足 밑에 「細長한 單瓣의 蓮花座」가 확인되었으며 그 手法은 이보다 앞서 發見된 瑞山郡 雲山面 磨崖三尊의 것과 거의 同式으로 추정되었을 뿐 後日의 發掘을 期待하여 온 것이다. 이 三尊佛은 그 후 寶物로 推定되어 보호를 받아오던 바 一九六七年三月二十九일부터 수일간 그 곳 太乙庵 主僧과 마침이 곳에 滯留하던 姜昔泉스님에 의하여 이 埋沒部가 原土에 이르기까지 발굴되었다(瑞山教育廳의 諒解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들 三尊下端의 蓮花座의 全貌가 처음으로 露出되었을 뿐 아니라 발굴에 따라서 多數의 三尊佛像片 瓦類 陶土器의 破片 등이 出土되었고 또 그 前面에서는 方形礎石 二個가 發見되어 三尊像 考察을 위한 新資料가 되었다. 이때 收拾된 遺物 사진 拓本 등은 그 후 모두 東國大 博物館으로 送附되어 왔으며 또 발굴자인 姜스님으로부터 數次 자세하게 그 大要를 聽取하였으므로 이곳에 記錄하여 두고자 한다.

먼저 완전히 露出시킨 蓮花座는 三像이 모두 거의 同一線上에서 各別의 伏蓮臺座를 이루었는데 이 點은 上擧한 雲山三尊의 各像이 크기와 姿勢에 따라 配置의 層段을 달리하는 蓮座를 지니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다음에 蓮花紋樣式도 泰安三尊의 것이 別圖와 같이 中央伏瓣이 길고 그 尖端이 三角形 ②이며 左右瓣 또한 細長한 先尖半月刀形을 이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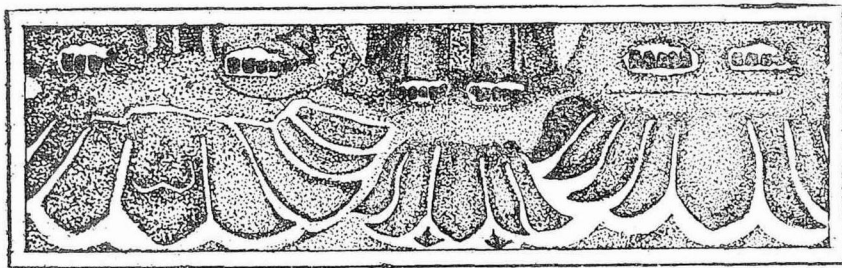
있어서 雲山佛의 楕圓廣瓣形과는 다르다. 이 같은 差別點은 동시에 彫法에 있어 雲山佛의 것이 厚肉豐滿함에 대하여 泰安像의 것이 薄肉線彫에 가까운點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兩三尊 蓮花紋樣式과 彫法의 判

異한 差別은 곧 樣式系統의 各異함과 그 造成年代의 先後를 가림에 있어서 하나의 基準을 삼을 수 있지 않을가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泰安像의 그것이 약간 앞서서는 것으로 보고자하는 바 이點은 兩三尊을 비교할 때 泰安三尊 佛菩薩의 樣式과 彫法이 雲山佛보다도 한층 古式을 보이고 있는 사실과는 相符한다. 필자는 일찌기 이들 兩三尊의 年代를 모두「六〇〇年頃」으로 추정하여 그 先後를 가리지 못하였는데 이와 같은 추정年代를 갑자기 修正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같은 蓮花座樣式에서 兩三尊 중 泰安像을 古式을 보이는 作品으로 注目하고자 한다. 塔像年代를 추정함에 있어서 이들 臺座가 注目되어야 한다는 高裕燮先生의 말씀은 특히 이 部分에서 時代樣式的 變遷相이 먼저 表現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三尊配置의 方式에 있어서도 泰安像이 兩如來立像 中央에 菩薩立像一軀를 配置하므로써 雲山佛보다도 더욱 特殊相을 보인 점도 아울러 주의 할만 하다.

三

다음에 이 蓮座발굴에 따르는 경위와 出土遺物을 들어야 할 것이다. 調査者에 의하면 地表下 約三尺半으로서 原土에 이르렀는바 그 사이에는 대략 三종의 遺物이 累積되었다고 한다. 먼저 地表 五寸下 中央에는 長約四尺幅 二尺厚 약 一尺의 板石이 놓이었고 그 板石을 除去한 그

밑에서는 李朝代의 黑灰色瓦片(그중에 陽刻銘瓦一片「葬...龍」과 白磁小瓶과 小盃粉靑小鉢 常平通寶 大小二個 銅指環 三個 등이 出土하였으며 그 下底部에서는 佛像彫片 約 十七個가 散亂되고 있었다. 이 佛像片은 모두 小薄片(그중 大片이 長十四cm 幅十七cm)뿐인데 石質이 무르고 淡紅色을 띠운點에서 火傷에 따르던 三尊으로부터의 剝落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에 그 밑으로 약 一尺 사이에는 火熱을 받은 赤色厚肉의 平瓦層을 이루었는데 그속에 混在하는 靑瓷小鉢片과 土器 銅器片 등에서 高麗期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上記한 佛像片의 발견은 또한 이와 관련되어서 이 層 上面에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 밑에는 圓·平瓦層을 이루고 있었는데 灰白色의 胎土가 無紋 繩席紋 등의 種別과 堅緻한 燒成方式에서 三尊造成當代의 百濟期와 그以後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三尊을 보이는 瓦類를 주로한 遺物의 出土는 이 三尊年代 뿐 아니라 그前面에 架構되었던 木造瓦葺 前室이 그始初부터 설치되었고 그 후 近世에 이르러까지 계속되어온 사실을 말하여 준다. 이같은 사실은 아마도 이 三尊磨崖像이 現存하는 가장 高古한 作品중의 하나임에 비추어 그 奉安方式을 추정케 하였는데 이것은 동시에 韓國石窟寺院의 始



三尊磨崖像臺座石本模寫

源樣式을 이곳까지 더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은 이곳 三尊이 矩形的 石龕形態를 뚜렷이 남기고 있어——특히 向左像 上面에서——한국 初期石窟의 모습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點과 三尊上部의 岩面에 圓孔과 排水溝 등이 마련된點에서 이 三尊外護를 위한 木造架構가 造成當初부터 동시 經營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이 당대 山東地方 등 中國石窟樣式的 變遷相——특히 磨崖佛과 그 木造前室의 流行——과 서로 關聯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四

그런데 이같은 瓦葺前室의 추정은 비단 유물에서 뿐 아니라 이 三尊前面 左右에서 兩個의 方形礎石이 地表下 一尺五寸에서 발굴되었으므로 더욱 明白하다. 이것 또한 오직 발굴자의 傳言을 따르는 기록인바 岩面에서 東(三尊은 東向)으로 약 六尺 떨어져 前庭 南北(兩如來立像밖으로)에 약 十尺의 간격을 갖고 方形礎石(高 약 一尺 上面徑 약 一尺) 各一이 相對하고 있었다. (全北 南原 雲峰 女院峙의 磨崖坐像 앞의 雙石柱에서 같은 방식을 볼 수 있다)④. 그리고 이 方礎(側面에는 各기 長方孔이 두개씩 뚫여 있어서 佛岩面(西)과 南 또는 北(따라서 兩孔이 相對한다)을 向하였다. 이것은 이들 兩孔을 연결하여 矩形平面을 구성하는 동시에 그 위에 立柱하고 佛岩上面에 걸쳐서 屋蓋架構를 可能케 한다. 屋蓋樣式이나 原初의 규모를 이같은 資料만으로 速斷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의 학술조사를 期하여야 할 것이나 이 三尊을 위한 木造架構의 存在만은 틀림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의 花崗面에 造成된 龕形磨崖佛이 처음부터 瓦葺架構를 갖고 있는 사실은 雲山佛에서는 아직 調査되지 않았으며 또 이곳 泰安佛前의 方礎가 과연 造成當初의 것으로서 後代까지 使用된 것인지로 지금 곧 가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堆積된 遺物層에서 이같은 架構가 歷代重建을 거듭 하여 온 사실만은 틀림 없다.

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같은 발굴이 禮拜尊像의 埋沒部를 除去하려는 곳에 目的이 있었으나 마침 參加者의 配慮로서 이만한 資料와 기록

이나마 入手된 것은 多幸이다. 앞으로는 指定物에 대한 임의의 발굴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인바 위의 논의를 다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1) 蓮座를 밝힘으로써 泰安三尊의 全貌가 들어났고 이에 따라 雲山三尊과의 對比가 可能하게 되었다. 泰安三尊의 蓮花座는 幅 약 八尺 高 약 一尺四寸이며 이 蓮座를 넣어 各像의 全高는 다음과 같다.

北如來立像 약 九尺五寸
中央菩薩立像 약 六尺七寸
南如來立像 약 九尺六寸

(2) 三尊의 埋沒되었던 下端部 衣紋樣式이 밝혀졌는데 各像이 모두 身側 下端에서 二段의 銳角을 보이고 있다. 또 菩薩立像의 衣紋이 中央에서 交叉되었다는 바 이것은 雲山菩薩立像의 天衣가 腹下에서 U字形을 이루고 다시 身側을 따라 길게 垂下되어 蓮座까지 이르고 있는 것과 다르다.

(3) 木造前室이 造成當初부터 近世까지 持續된 사실이 추정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初期磨崖佛 考察에서 注目되어야 하며 나아가 韓國石窟寺院의 始源樣式으로 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三國末 내지 統初로 추정된 慶北 奉化 北枝里 磨崖坐像과 榮州 可興里 三尊像의 木造前室, 上記한 奉化像과 隣在하던 石造半跏思惟像(今移在 慶北大)을 위한 木造架構⑤ 또는 경주 南山佛谷 龕佛이나 同長倉谷原在 三尊石像⑥(本尊 倚像移在 慶博)에서 推定된 瓦葺木造架構 등은 모두 韓國初期 磨崖 내지 石窟佛의 復元的 考察에서 注目되어야 할 것인바 그들은 나아가 吐含 山石窟의 木造前室架構樣式과 連關될 수 있을 것이다.

(4) 泰安三尊의 年代를 百濟下代 六〇〇年頃으로 추정한 바 있었는데 새로 밝혀진 諸點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泰安三尊은 기왕에 조사된 國內의 磨崖石像으로서 가장 오랜 作例라 하겠는데 이를 위한 학술조사가 앞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泰安三尊의 高古함과 貴重함에서 비록 옳은 경위를 밝은 학술조사의 내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기왕에 收拾된 資料를 이곳에 기록하는 것은 앞으로의 다른 조사에서 參考되기를 바라는 까닭이며 동시에 그나마 선

의에서 수습된 資料를 放置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一九六八年 七月三日稿)

註

- ① 拙稿·忠南泰安의 磨崖三尊佛像 「歷史學報」 第十七·八合輯 一九六二年 六月
- ② 이 같은 蓮花紋樣式은 一九六七年一月 서울市 三陽洞 出土의 金銅 如來立像(國博陳列)의 臺座 또는 高句麗壁畫에서 볼 수 있다.
- ③ 佛像片(특히 下部)의 剝落은 前室火災가 原因이며 그 年代는 高麗以後로 推定된다.
- ④ 秦弘覺·南院女院峙의 磨崖如來像(考古美術)五十一、一九六四年 十一月
- ⑤ 拙稿·奉化 半跏思惟石像의 調査 「文化財」 第三號 一九六七年 十二月 文化財管理局 刊
- ⑥ 拙稿·慶州 南山長倉谷에서 출진 三尊石像 「史學會誌」七號 一九六四年 十二月 延世大 史學研究會編

泗川 松旨里 石箱式古墳群 發掘調査概要

鄭 永 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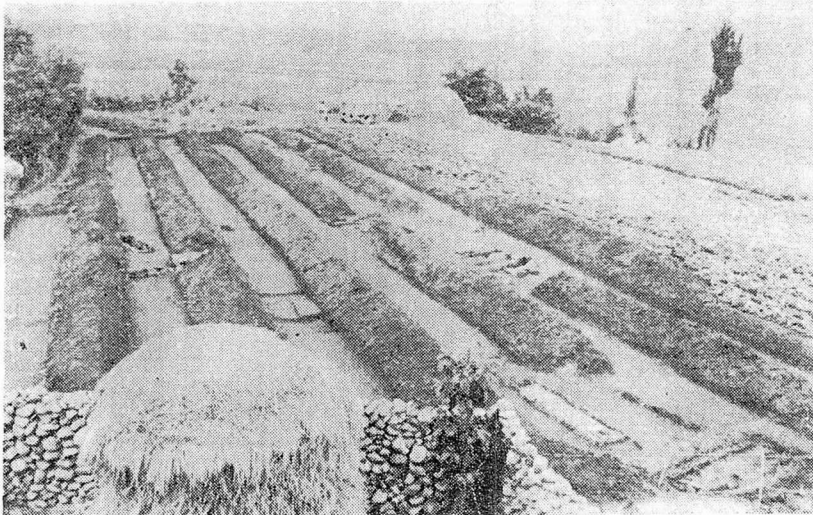
檀國大學校 博物館에서는 慶尙南道 泗川郡一帶 先史時代의 遺物調査計劃에 따르는 第二次調査①로 지난 七月二十四일부터 八月三日까지 泗川郡 龍見面 松旨里 三三五番地 耕作地에 位置하는 石箱式古墳 十三基를 發掘調査하였다.

現在 泗川郡에 遺存하는 石箱墳群은 同面과 正東面 等地에 數處 있을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나 今般 松旨里의 石箱墳을 發掘調査케 된 것은 지난 六月初 統營郡守 金相朝氏와 泗川郡公報室長 金榮泰 兩氏의 紹介로 現地를 踏査한 바② 이 곳 松旨里 部落에 石箱墳의 板石이 家戶마다 散亂하고 特히 洪性鐵氏(三六歲)가 所有한 上記 耕作地에 石材가 出土되 며 土器破片이 無數히 發見된다 하여 當時 筆者도 이 光景을 目擊하였

으며 貴重한 先史遺蹟을 收拾코자 破壞墳의 整理와 諸遺物의 發掘을着手하게 된 것이다.

이번 發掘調査에는 筆者가 主管하여 史學科生 男女三十一名이 參加하였으며 記錄에는 大學院史學科生 李昊榮君이 手苦하였고 同人 申榮勲氏가 實測을 擔當하고 發掘進行과 遺物收拾까지도 助言을 주어서 計劃대로 圓滿한 作業이 遂行되었다. 今般 施行된 發掘調査의 詳細한 內容은 앞으로 發刊된 報告書에 發表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만 發掘의 進行과 出土된 石箱墳의 構造 및 諸遺物의 內容을 略報코자 한다.

泗川邑內로 부터 三千浦行 車道로 約 十km 龍見面所在地에서 下車하여 西岑海岸으로 一·五km 쯤 步行하면 松旨部落에 이른다. 이 마을에서 西南쪽으로 바다 건너 바라보면 昨年度에 發掘調査한 西浦面 舊平里 貝塚地域③이 보이며 (直線距離 約 十km 라 함) 西쪽으로는 長大한 堤防이 築造되었는데 筆者가 郡當局에 問議調査한 바에 依하면 이 防築은 日帝末년에 完



發掘現場 光景